

정당화 이론으로서의 과정 신빙주의

최 영 천

(서울대 철학과 대학원)

1. 서론

전통적으로 지식은 '정당화된 참인 믿음'으로 정의되어 왔다. 지식에 대한 정의 속에 '정당화'를 포함시키는 이유는 믿음과 그 믿음의 참 사이의 우연적인 연결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당화는 믿음과 참 사이의 연결을 완벽하게 보장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그러나 Gettier의 논문이 발표된 이후로 정당화는 믿음과 참 사이의 연결을 완벽하게 보장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¹⁾ 그리고 믿음과 참 사이의 완벽한 보장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화 조건을 지나치게 강화시켜 정당화 개념을 일상적인 의미와 동떨어지게 만든다는 점 역시 널리 인정되었다. 그래서 정당화 이론은, 지식을 정의하기 위해 정당화 조건을 탐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일상적인 의미에 보다 부합하는 정당화 조건을 탐구하고자 한다.

그러면, 정당화 이론의 탐구 대상은 무엇인가? '한 믿음이 정당화된다는 말은 '그 믿음이 적절한 근거와 연결되어 있다(to be based on an adequate ground)'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²⁾ 여기에서 근거가 무엇이고, 적절한 근거란 또 무엇이며, 믿음과 근거가 연결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탐구가 정당화 이론의 중심 과제라 할 수 있다. 이 탐구 과제들 중 과정 신빙주의가 중심으로 탐구하는

1) Gettier (1963).

2) Alston (1988) p. 227. 'to be based on'을 '기초해 있다', '서 있다' 등으로 번역할 수도 있으나, 이 번역은 토대주의를 전제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중립적인 표현인 '연결되어 있다'로 번역한다.

것은 '믿음과 근거 사이의 연결'이다.

이 글에서는 우선 과정 신빙주의(process reliabilism)의 입장을 간략하게 살펴볼 것이다.³⁾ 그리고 과정 신빙주의에 대한 두 비판을 고찰해볼 것이다. 한 비판은 과정 신빙주의의 입장이 정당화의 인과적인 조건을 고려하는 데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이 비판을 고찰하는 과정에서 Goldman이 제안한 과정 신빙주의를 보다 세련화시킬 것이다. 다른 비판은 과정 신빙주의가 인식적 합리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없다는 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필자는 외재주의적 경향을 띤 과정 신빙주의가 인식적 합리성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보고자 한다.

2. Goldman의 과정 신빙주의

'한 믿음이 적절한 근거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그 믿음이 적절한 근거와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만 이해되어 왔다. 그런데 다음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철수는 p 를 믿고 있다. 또한 $p \rightarrow q$ 도 믿고 있다. 그리고 철수는 지금 q 를 믿었다. 그런데 철수는, q 를 믿을 때, p 에 대한 믿음과 $p \rightarrow q$ 에 대한 믿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단지 철수는 q 를 읽을 때 들리는 소리가 좋아서 q 를 믿었던 것이다. 이 경우 철수의 q 에 대한 믿음은 정당화되는가? 전통적인 입장을 따른다면, 철수의 q 에 대한 믿음은 정당화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철수의 q 에 대한 믿음은 철수의 p 에 대한 믿음, $p \rightarrow q$ 에 대한 믿음과 전건 긍정의 법칙(Modus Ponens)이라는 논리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직관적으로 철수의 q 에 대한 믿음을 정당화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Goldman은, 철수의 q 에 대한 믿음을 정당화되지 않는 것으로 파

3) 과정 신빙주의의 대표적인 예들로 Goldman (1979), (1986), Heil (1982), Kornblith (1980), Schmitt (1981), (1984), Sosa (1980), (1991a) 등을 들 수 있다.

악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당화의 조건에 인과적인 요소를 덧붙여야 한다고 주장한다.⁴⁾ 철수의 q에 대한 믿음은 p와 $p \rightarrow q$ 에 대한 믿음에 의해 야기된 것이 아니라, q의 소리가 좋다는 것에 의해 야기된 것이다. 그래서 철수의 q에 대한 믿음이 철수의 p와 $p \rightarrow q$ 에 대한 믿음과 논리적인 관계를 맺은 것은 매우 우연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다. 바로 이 우연성 때문에 우리는 직관적으로 철수의 q에 대한 믿음을 정당화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우연성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믿음과 근거 사이의 인과적인 연결 역시 고려해야 하며, 믿음의 인과적 형성과정에 대해 제약을 가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과정 신빙주의의 주장이 타당하다면, 우리는 당연히 다음 질문을 던지게 된다. “한 믿음이 인과적으로 적절하게 형성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인식적 정당화의 목표를 참인 믿음을 최대화하고 거짓인 믿음을 최소화하는 것이라 한다면, 이 목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형성된 것이 바로 적절하게 인과적으로 형성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보자. 믿음을 산출한 인과적 과정을 ‘믿음형성과정(belief-forming process)’이라고 부르자. 그러면 ‘한 믿음이 참을 최대화하고 거짓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인과적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은 ‘그 믿음이 참을 최대화하고 거짓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믿음형성과정에 의해 산출되었다’는 말이 된다. 여기서 참을 최대화하고 거짓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참인 믿음을 거짓인 믿음보다 (충분한 정도로) 더 많이 산출한다’라고 달리 표현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한 믿음이 인과적으로 적절하게 형성되었다는 것은 ‘그 믿음이 참인 믿음을 거짓인 믿음보다 더 많이 산출하는 믿음형성과정에 의해 산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참인 믿음을 거짓인 믿음보다 더 많이 산출하는 경향성이 ‘신빙성(reliability)’이다. 한 믿음이 인과적으로 적절하게 형성되는 것이 그 믿음의 정당화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한 믿음의 정당화 여부는 그 믿

4) Goldman (1979), p. 113.

음을 산출한 믿음형성과정⁵⁾이 갖는 신빙성의 함수'가 된다. 따라서 정당화에 대한 과정 신빙주의의 입장을 정식화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만약 시간 t 에 S 가 p 를 믿는 것이 신빙성 있는 (인지적) 믿음형성과정에 의해 산출되었다면,
시간 t 의 p 에 대한 S 의 믿음은 정당화된다.⁶⁾

3. 증거주의의 반론과 과정 신빙주의의 재정식화

그런데 과정 신빙주의가 믿음과 근거 사이의 인과적인 연결에 관한 이론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 이런 비판을 제기하는 대표적인 예로는 '증거주의(evidentialism)'가 있다.⁷⁾ 증거주의는 '신빙성 있는 믿음형성과정'이라는 개념에 초점을 맞추어 과정 신빙주의를 비판한다. 과정 신빙주의의 핵심을 이루는 '신빙성 있는 믿음형성과정'이라는 개념 자체가 매우 이해하기 힘든 개념이며, 임의적일 가능성이 농후한 개념이라는 것이다.

증거주의의 이런 비판은 두 가지 논거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 논거는 신빙성 개념과 관련되어 있다. 앞에서 믿음형성과정이 신빙성이 있다는 것은 그 믿음형성과정이 참인 믿음을 거짓인 믿음보다 더 많이 산출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증거주의는 이 말을

5) Loc., cit.

6) Goldman은 믿음형성과정의 범위를 인지적 사건들(cognitive events)로 한정하고 있다. Goldman (1979), p. 116을 보라. 믿음형성과정을 세계에서 믿음까지로 넓게 해석하는 입장을 지표 신빙주의(indicator reliabilism)라 부를 수 있다. 지표 신빙주의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글들로는 Armstrong (1973), Swain (1981) 등이 있다. 그러나 Schmitt (1981)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입장은 정당화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지식에 관한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7) 이 입장은 한 믿음의 정당화 여부는, 인과적 과정과는 무관하게, 전적으로 그 믿음과 인식 주체가 가진 다른 믿음들과의 '증거적 관계(evidential relation)'에 의해서만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입장의 대표적 예로는 Feldman & Conee (1985)가 있다.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주장한다.⁸⁾ 그래서 과정 신빙주의는 신빙성 개념에 대한 보다 정교한 설명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논거는 어떤 사람이 하나의 믿음을 형성했을 때, 그 믿음을 형성한 믿음형성과정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 믿음의 정당화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⁹⁾ 그래서 과정 신빙주의는 믿음의 정당화 여부와 유관한 믿음형성과정의 결정을 임의적이지 않게 객관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적절한 인과적인 연결이 정당화에 필수적이라 하더라도 과정 신빙주의가 이것을 적절하게 다룰 수 없다면, 과정 신빙주의를 적절한 정당화 이론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두 문제점들을 차례로 검토해 보고 해결 방안을 찾아 보자.

3.1. 신빙성 개념에 대한 검토

과정 신빙주의는 '신빙성 있는 믿음형성과정'이란 '거짓인 믿음보다 참인 믿음을 더 많이 산출하는 믿음형성과정'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거짓인 믿음보다 참인 믿음을 더 많이 산출한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가장 쉽게 떠오르는 대답은 '현실 세계에서 거짓인 믿음보다 참인 믿음을 더 많이 산출한다'라고 이해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신빙성을 현실 세계에서 실제 빈도(actual frequency)로 해석하자는 이런 대답은 심각한 난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빙성을 현실 세계의 실제 빈도로 해석한다는 것은 한 믿음형성과정의 신빙성 여부를 그 믿음형성과정이 현실 세계에서 산출한 믿음들에 근거해서 판단하자는 주장이다. 그런데 한 믿음형성과정의 신빙성 여부를 현실 세계에서 실제 빈도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그 믿음형성과정이 현실 세계에서 충분히 많은 믿음들을 산출

8) 신빙성 해석에 따르는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과정 신빙주의를 비판하는 글들은 Feldman & Conee (1985), Foley (1985), Ginet (1985), Gleb (1990) Ring (1986) 등이 있다.

9) 이 문제에 근거해서 과정 신빙주의를 비판한 글들로는 Feldman & Conee (1985), Feldman (1985a), (1985b) 등이 있다.

해야만 한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 세계에서 소수의 믿음만을 낳은 믿음형성과정에 의해 산출된 믿음의 정당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과정 신빙주의가 정당화에 관한 올바른 이론이기 위해서는 이런 믿음의 정당화 여부 역시 타당하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신빙성을 현실 세계에서 실제 빈도로 해석할 경우, 과정 신빙주의는 이런 믿음들에 대한 정당화 여부의 판단에 무력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 소수의 믿음만을 산출한 믿음형성과정의 신빙성을 결정하는 데의 문제점은 신빙성 여부를 타당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자료들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한 믿음형성과정의 신빙성 여부를 현실 세계의 실제 빈도뿐만 아니라 가능세계(possible world)에서의 빈도까지 고려해서 판단하자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신빙성을 가능세계에서의 빈도까지 고려해서 해석하더라도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떤 믿음형성과정이든지 그 믿음형성과정이 신빙성이 있는 가능세계들과 신빙성이 없는 가능세계들이 함께 존재할 것이다. 그렇다면 한 믿음형성과정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가능세계에서의 빈도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가? 고려의 대상이 되는 가능세계들 중 그 믿음형성과정이 신빙성이 있는 가능세계들의 수와 그렇지 않은 가능세계들의 수를 비교해서 결정할 것인가, 아니면 가능세계들 모두에서 그 믿음형성과정에 의해 산출될 믿음들의 개수를 바탕으로 참인 믿음들과 거짓인 믿음들의 수를 비교해서 결정할 것인가? 가능세계에서 한 믿음형성과정이 산출할 믿음들을 셀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되기 힘든 말이다. 나아가 가능세계들의 수를 비교한다는 말 역시 이해하기 힘든 말임에는 틀림없다.

Goldman은 믿음형성과정의 신빙성 여부를 '정상 세계들'(normal worlds)에 근거해서 판단하자고 제안한다.¹⁰⁾ Goldman이 제안한 정상 세계들이란 '현실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믿음들(general belief)과 일관적인(consistent) 세계들'이다. Goldman이 제안한 '정상 세계들'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정상세계들'이란 것이 현실 세계는 아니기에, 가능세계의 일종

10) Goldman (1986), p. 107.

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래서 정상 세계들에 근거해서 신빙성을 해석하자는 Goldman의 제안 역시 가능 세계에 근거해서 신빙성을 해석하는데 따르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능세계나 현실 세계에서의 빈도에 근거해서 신빙성을 해석하는 것은 해결하기 힘든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타당할 것이다. 그런데 신빙성 해석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 신빙성을 빈도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신빙성을 꼭 빈도로만 해석해야 할 이유가 없으며, Goldman 역시 신빙성을 꼭 빈도로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Goldman은 신빙성을 '실제 빈도'나 '성향'(propensity)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한다.¹¹⁾ 필자는 과학 신빙주의의 입장에 적합한 신빙성 해석은 신빙성을 성향으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본다.¹²⁾ 신빙성이란 기본적으로 참인 믿음과 거짓인 믿음의 비율이다. 이 비율은 확률이다. 그래서 신빙성을 믿음형성과정의 성향으로 해석한다는 말은 신빙성을 확률의 성향 해석(propensity interpretation of probability)에 따라 파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확률에 대한 성향 해석은 Popper에 의해 처음 제시되었다.¹³⁾ Popper는 한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계산할 증거 집합의 구성원들이 제한된 소수(小數)인 경우, 그 사건의 확률을 설명하는 데 빈도 해석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이를 위해 성향 해석을 제안했다. 그래서 신빙성을 빈도로 해석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인 현실 세계에서 소수의 믿음만을 산출한 믿음형성과정의 신빙성 결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¹⁴⁾

11) Goldman (1979), p. 114.

12) 이와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글로는 Sosa (1991b)가 있다.

13) Popper (1959).

14) 물론 확률의 성향 해석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성향 해석에 대한 가장 중요한 반론은 성향 해석이 bayesian 원리를 어긴다는 비판이다. 분명히 이런 지적은 확률 이론으로서의 성향 해석에 심각한 어려움을 던져 주는 것이다. 그러나 확률이 어떤 식으로든지 조건에 상대화되어야 한다는 점이 널리 인정되고 있기에, 이후 전개되는 이 글의 논의는 이 비판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확률 해석, 특히 성향 해석의 문제점에 관해서는 Cohen (1989)를 참조하라.

그런데 성향이라는 것은 주위 환경에 따라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어떤 사람이 남을 잘 도와주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항상 자나깨나 남을 도와주는 것은 아니다. 그 사람이 혼자 있을 때, 혹은 잠잘 때, 화장실에서 일을 보고 있을 때는 도와줄 남이 없고, 이때는 남을 도와주는 성향이 발현하지 않는다. 남을 잘 도와주는 성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도와줄 남이 있어야만 하듯이, 신빙성 있는 믿음형성과정 역시 적절한 조건이 갖추어져야 신빙성 있게 작동할 수 있다. 시각을 통한 믿음형성과정을 생각해 보자. 통상적으로 시각을 통한 믿음형성과정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 믿음형성과정이 항상 신빙성 있게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인식 주체의 건강 상에 문제가 있거나, 시야가 가려져 있거나, 빛의 밝기가 충분하지 않거나, 대상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시각을 통해 형성된 믿음의 참일 가능성이 낮아진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시각을 통한 믿음형성과정은 적절한 조건이 형성되어야 신빙성 있게 작동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빙성 있는 믿음형성과정은 “적절한 입력조건(adequate input-condition)” 하에서만 신빙성 있게 작동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형성과정이 신빙성이 있다는 것을

(R1) 믿음형성과정 P는 신빙성이 있다

=df 믿음형성과정 P는 ‘적절한 입력조건 I’에서 거짓인 믿음보다 참인 믿음을 더 많이 산출하는 성향을 나타낸다

와 같이 정의해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적절한 입력조건’을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가? 믿음형성과정 P가 일단 작동하는 데는 무수히 많은 입력조건들이 있을 것이다. 이 무수히 많은 입력조건들 중에서 믿음형성과정 P가 신빙성 있게 작동하는 데 필수적인 입력조건들만을 간추려서 ‘적절한 입력조건’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입력조건들 중의 어떤 한 요소가 믿음형성과정 P가 신빙성 있게 작동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는, 그 요소를 제외한 입력조건 하에서 믿음형성과정 P가 작동했을 때와 그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입력조건 하에서 작동했을 때의 신빙성의 변화를 조사해 봄으로써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조사과정을 통해 우리는 믿음형성과정 P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며, 이렇게 찾아낸 요소들로 적절한 입력조건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믿음형성과정의 적절한 입력조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요소들로 구성되는지에 대한 탐구는 인지 심리학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믿음형성과정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엄청나게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신빙성 있는 믿음형성과정이 적절한 입력조건 하에서 작동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 것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시각의 경우를 고려해보자. 시각을 통한 믿음형성과정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요소들이란 눈의 망막에 맺히는 자극들 중 우리 인간이 처리할 수 있는 것들로 한정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망막에 맺히는 자극을 처리하고 해석하는 인간의 모듈(module) 수는 엄청나게 많지는 않아 보인다.¹⁵⁾ 더구나 믿음형성과정의 신빙성에 미세한 변화만을 일으키는 요소들은 무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3.2. 일반성 문제에 대한 검토

이상의 논의에서 증거주의가 제기한 신빙성 개념의 문제점은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증거주의가 제기한 유관한 믿음형성과정의 결정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해 보자. 이 문제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다음의 예를 보자.

15) 신경회로망(neural-network) 이론이 인간의 인지과정에 대한 설득력 있는 견해라면, 이 주장은 별 무리가 없어 보인다. 신경회로망 이론의 주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한히 다양한 인지 대상들의 특징들을 인식하는 데 무한히 많은 세부특정 탐지기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 제한된 수의 모듈로도 충분히 성공적으로 무수히 많은 세부특정들을 인식할 수 있다는 주장일 것이다. 신경회로망 이론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Martindale (1991)을 참조하기 바란다.

<예 1>

영희는 땅거미가 내려앉고 있는 저녁, 그녀의 방 창문 앞에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창밖의 정원에는 그녀의 아이들이 재미있게 놀고 있었다. 영희는 정원 너머의 숲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흰색의 원반 모양의 물체가 공중을 지나갔다. 그녀는 자신이 아이들에게 며칠 전 흰색의 원반놀이기구를 사주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외계인이 지구를 방문하고 있다는 생각에 매력을 느껴 그 물체가 U.F.O라고 믿었다.¹⁶⁾

영희의 믿음은 정당화되는가? 과정 신빙주의가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영희의 믿음이 신빙성 있는 믿음형성과정에 의해 산출된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영희의 믿음을 산출한 믿음형성과정을 '시각을 통한 믿음형성과정'이라 해 보자. 우리는 시각을 통한 믿음형성과정을 신빙성 있는 믿음형성과정이라고 여긴다. 그래서 과정 신빙주의는 영희의 믿음을, 신빙성있는 믿음형성과정을 통해 산출된 것이므로, 정당화된다고 간주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직관적으로 영희의 믿음을 정당화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반직관적인 결론을 피하기 위해 과정 신빙주의는 <예 1>의 영희의 믿음을 형성한 믿음형성과정을 '시각을 통한 믿음형성과정'보다 좁게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하는가? 또 어떤 기준에 따라 설정해야 하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타당한 대답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과정 신빙주의는 정당화 이론으로서 적합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Feldman은 이 문제를 '일반성의 문제(The Generality Problem)'라고 부른다.¹⁷⁾ 그런데 이 문제는 다시 두 가지의 세부 문제들로 나뉜다. 한 믿음의 정당화 여부를 결정하는데 유관한 믿음형성과정을 매우 좁고 구체적으로 결정하자고 제안해 보자. 이 경우 그 믿음에 유관한 믿음형성과정은 단 하나뿐일 것이다. 그런데 그 믿음형성과정이 산출한 단 하나의 믿음이 참이라면, 그 믿음형성과정은 무조건 신

16) 이 예는 Feldman & Conee (1985), p. 340에 있는 예를 조금 각색하여 옮긴 것이다.

17) Feldman (1985a), p. 161.

빙성 있는 믿음형성과정일 것이고, 그래서 그 믿음은 정당화될 것이다. 따라서 모든 참인 믿음들이 정당화된다는 이상한 결론을 낳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를 Feldman은 ‘단일 경우의 문제(The Single Case Problem)’라고 부른다.¹⁸⁾

또 다른 일반성 문제는 유관한 믿음형성과정을 너무 넓게 결정했을 때 생긴다. <예 1>에서 영희의 믿음을 산출한 믿음형성과정을 다소 넓게 시각을 통한 믿음형성과정이라고 간주한다면, 영희의 믿음이 정당화된다는 반직관적인 결론을 도출하게 된다. 이런 반직관적인 결론을 인정할 수 없다면, 과정 신빙주의는 영희의 믿음이 신빙성 있는 믿음형성과정을 통해 산출되었다 하더라도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신빙성 있는 동일한 믿음형성과정을 통해 산출된 믿음들이라 하더라도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고 정당화되지 않는 경우가 있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를 Feldman은 ‘비구분의 문제(The No-Distinction Problem)’라고 부른다.¹⁹⁾

그러면 일반성의 두 문제들 중 첫 번째 문제를 먼저 살펴보자. 단일 경우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신빙성을 빈도로 해석하는 데 그 출발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신빙성을 성향으로 해석할 경우 믿음형성과정이 산출한 믿음이 현실 세계에는 단 하나뿐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그 믿음이 참이라 하더라도 그 믿음형성과정을 신빙성 있는 것이라 간주해야 할 이유가 없어진다. 따라서 신빙성을 성향으로 해석하게 되면 단일 경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빙성을 성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완전히 단일 경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은 아니다. Feldman은 신빙성을 성향으로 해석하더라도 단일 경우의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고 주장한다.²⁰⁾ Feldman은 이를 주장하기 위해 Schmitt의 입장을 비판한다. Schmitt는 “믿음형성과정을 구체적이고, 완전히 특수화된 사건(concrete, completely specific event)으로 간주하고, 그 믿음형성과정의 신빙성을 참인 믿음을 산출하는 그 믿음형성과정의 성향으로 간

18) Loc., cit.

19) Loc., cit.

20) Ibid., pp. 168-170.

주하자"라고 주장한다.²¹⁾ 하지만 믿음형성과정을 '구체적이고, 완전히 특수화된 사건'으로 볼 경우, 아무리 신빙성을 성향으로 해석하더라도 단일 사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구체적이고, 완전히 특수화된 사건'이라는 것은 단 하나뿐인 사건이다. 그래서 그 믿음형성과정의 신빙성 여부는 그 믿음형성과정이 산출한 단 하나의 믿음에 근거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단일 경우의 문제가 다시 발생하게 된다.

그러면 왜 Schmitt는 믿음형성과정을 극단적으로 좁게 설정하려고 한 것인가? 구체적이고, 완전히 특수화된 사건으로 믿음형성과정을 설정하지 않을 경우 비구분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믿음형성과정을 Schmitt의 입장보다 넓게 설정해야 한다면, 비구분의 문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인가? 여기서 우리는 비구분의 문제가 제기하는 핵심적인 사항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비구분의 문제는 ① 믿음의 정당화 여부와 관련한 믿음형성과정을 결정할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과 ② 관련한 믿음형성과정을 넓게 설정하면, 동일한 믿음형성과정에 의해 산출된 믿음들이 정당화되기도 하고 정당화되지 않기도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비구분의 문제가 제기하는 핵심 사항 ②를, Schmitt와 같은 과정 신빙주의자나 Feldman과 같은 비판가들은, 정당화되는 믿음과 그렇지 않은 믿음을 각기 다른 믿음형성과정에 의해 산출된 것이라는 점을 보임으로써만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비구분의 문제가 제기하는 핵심 사항 ②를, 과정 신빙주의가 반드시 두 경우 서로 다른 믿음형성과정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만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 같다. (R1)에 나타나 있듯이 한 믿음형성과정의 신빙성은 그 믿음형성과정이 작동한 입력조건에 상대적인 것이다. 그래서 한 입력조건 하에서 신빙성이 있었던 믿음형성과정이 적절하지 않은 다른 입력조건 하에서는 신빙성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

21) 이런 Schmitt의 입장은 그의 논문 "Knowledge, Justification, and Reliability"에 실려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논문은 아직 공식적으로는 발표되지 않아 필자가 구할 수 없었다. 그래서 Feldman (1985a)에 실린 Feldman이 인용하고 설명한 부분을 참조했다.

은 당연해 보인다. 과정 신빙주의는, 정당화되는 믿음은 그 믿음형성 과정이 적절한 입력조건 하에서 신빙성 있게 작동해서 산출된 것이며, 정당화되지 않는 경우는 그 믿음형성과정에서 적절한 입력 조건 하에서 신빙성 있게 작동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동일한 믿음형성과정에서 정당화되는 믿음과 그렇지 않은 믿음들이 산출되는 것은 과정 신빙주의에게 별 문제거리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비구분의 문제가 제기하는 핵심 사항 ①을 검토해 보자. 핵심 사항 ①은 한 믿음의 정당화 여부와 유관한 믿음형성과정을 결정할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믿음형성과정들을 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시각을 통한 믿음형성과정을 고려해 보자. 인지심리학의 연구 성과에 따르면, 시각을 통한 믿음형성과정은 ‘시각을 통해 문자를 이해하는 믿음형성과정’과 ‘시각을 통해 대상을 인지하는 믿음형성과정’ 등으로 나뉜다.²²⁾ 그런데 이렇게 나뉜 믿음형성과정들은 그 과정들이 뇌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뇌의 특정 부위를 손상당한 사람의 경우, 그 부위에 위치한 믿음형성과정만을 수행하지 못할 뿐, 다른 믿음형성과정들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점에 근거해서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실독증(Alexic agnosia)에 걸린 사람을 고려해 보자. 이 사람은 뇌의 특정 부위를 손상당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시각을 통해 대상을 인지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 그 부위를 손상당한 후부터 유독 시각을 통해 문자를 이해하는 능력만을 상실했다. 그렇지만 말은 알아듣는다. 따라서 ‘시각을 통해 문자를 이해하는 믿음형성과정’과 ‘시각을 통해 대상을 인지하는 믿음형성과정’은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구분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하나의 믿음형성과정은 여러 개의 세부적인 인지처리과정들로 구성되어 있다. ‘시각을 통해 문자를 이해하는 믿음형성과정’은 시각자극을 처리하는 인지처리과정과 이렇게 처리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동하는, 의미를 파악하는 인지처리과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²³⁾

22) 여기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Martindale (1991), ch. 3을 참조하라.

그래서 한 믿음형성과정을 구성하는 세부적인 인지처리과정들 중 어느 하나가 잘못 작동한다면, 그 믿음형성과정의 신빙성은 현저하게 저하될 수도 있다. 따라서 믿음형성과정의 신빙성은 입력조건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인지처리과정들의 작동조건에도 영향을 받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한 믿음형성과정이 신빙성 있게 작동하기 위한 조건으로 적절한 입력조건 I 이외에 세부적인 인지처리과정들이 잘 작동해야 한다는 조건을 덧붙여야 한다. 이 조건을 '세부적인 인지처리과정들의 적절한 작동조건 O'라고 하자.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과정 신빙주의는 동일한 믿음형성과정이라도 과학적으로 탐구된 입력조건과 작동조건에 따라 정당화된 믿음과 그렇지 않은 믿음을 산출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구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신빙성을 성향으로 해석하는 동시에, 믿음형성과정을 너무 좁게 설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단일 경우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세련화된 과정 신빙주의를 정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 (2) 만약 시간 t에 S가 p를 믿는 것이 신빙성 있는 (인지적) 믿음형성과정에 의해 산출된 것이라면,
 시간 t에 S가 가진 p에 대한 믿음은 정당화된다
 (R2) 믿음형성과정 P는 신빙성이 있다
 =_{df} 믿음형성과정 P는 맥락 C에 의해 규정된 <적절한 입력조건 I, 세부적인 인지처리과정의 적절한 작동조건 O>
 하에서 거짓인 믿음보다 참인 믿음을 더 많이 산출하는 성향을 나타낸다.

4. 내재주의의 반론과 과정 신빙주의의 가능한 대응

과정 신빙주의는 한 믿음이 정당화되는 조건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23) Martindale (1991), pp. 59-60.

있지는 않으며, 원리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반론이 있다.²⁴⁾ 이런 반론을 제기하는 대표적인 입장으로 ‘내재주의(Internalism)’가 있다. 내재주의는 정당화 개념에 합리성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내재주의는 ‘한 믿음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그 믿음이 인식 주체의 관점에서 볼 때 합리적인 믿음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내재주의는 과정 신빙주의가 인식 주체의 합리성 개념을 고려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 이 비판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내재주의가 정당화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주장하는 인식 주체의 합리성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믿음이 정당화되기 위한 합리성의 조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Bonjour가 제시하는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그리고 이 예가 시사하는 합리성의 조건을 찾아보도록 하자.

<예 2>

종훈이는 역사학자인데, 어떤 역사적인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오랜 연구를 통해, 그 질문에 적절한 이용가능한 모든 자료들을 조사해서 그 자료들과 가장 잘 부합하는 결론을 얻었다. 그리고 그 결론은 실제로 정확했다. 그런데 종훈이는 연구가 한창일 때 우연히 신통한 유리 구슬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그 유리 구슬은 완벽한 신빙성은 아니지만 상당한 신빙성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구슬이었다. 종훈이는 그 유리 구슬이 신빙성이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런데 만약 종훈이가 그 유리 구슬에게 그가 탐구하고 있던 질문을 물어보았다더라면, 그 구슬은 종훈이가 얻은 결론과는 다른 대답을 제공했을 것이다. 그래서 종훈이는 두 대답 중에서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을 것이다.²⁵⁾

<예 2>에서 종훈이의 결론에 대한 믿음은 종훈이가 인식적 책임을 다해 가진 믿음이기엔 정당화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Bonjour는 한 믿음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인식 주체가 그 믿음을 믿기 위해

24) 이런 비판을 가하는 대표적인 글들로는 Audi (1980), Bonjour (1980), (1985), Foley (1985), Ginet (1985) 등이 있다.

25) Bonjour (1985), pp. 48-49.

해야 할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²⁶⁾ 따라서 BonJour는 정당화 조건에 필수적인 합리성 조건으로 '인식적 책임의 조건(epistemic responsibility condition)'이라 부를만한 것을 제안한다고 볼 수 있다.

Goldman 역시 인식적 책임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다. Goldman은 인식적 책임이 정당화와 유관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인식적 책임을 고려하기 위해, 정당화를 약한 정당화(weak justification)와 강한 정당화(strong justification)로 나누어 생각할 것을 제안한다.²⁷⁾ 이 제안에 따르면, 약하게 정당화된 믿음은 '비난받지 않을 만한(blameless, nonculpable)' 믿음이며, 강하게 정당화된 믿음은 (1)과 '방해적 요소의 부재(no undermining factor condition)'라는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믿음이다.²⁸⁾ 여기서 방해적 요소의 부재라는 조건은 문제의 믿음과 일관적이지 않는 믿음들을, 나아가 이런 믿음들을 산출할 신빙성 있는 믿음형성과정을 인식 주체가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²⁹⁾

그러나 Goldman의 이런 제안은 당장 <예 2>을 설명하지 못한다. <예 2>에서 종훈이가 가진 믿음이 강하게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방해적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종훈이의 믿음은 약하게 정당화되는 것인가? Goldman은 약한 정당화의 조건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그렇지만 약하게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문제의 믿음이 신빙성 없는 믿음형성과정에 의해 산출되어야만 한다.³⁰⁾ 그러나 <예 2>의 종훈이의 믿음은 신빙성 있는 믿음형성과정을 통해 산출되었다. 그래서 약하게 정당화된 믿음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Goldman의 제안은 인식적 책임의 조건을 충분히 포섭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BonJour의 인식적 책임의 조건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를

26) Ibid., p. 48.

27) Goldman (1988), p. 128.

28) Ibid., p. 133.

29) Ibid., p. 130.

30) Ibid., pp. 131-132.

떨는가? Bonjour는, “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정당화된다는 것에 대한 메타믿음을 인식 주체가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는 형태로 제시하고 있다.³¹⁾ 그런데 인식 주체가 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정당화된다는 것에 대한 단순한 메타믿음만을 가지는 것으로 인식적 책임을 다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 믿음이 정당화되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없이 그저 메타믿음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당화된 메타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인식적 책임의 조건에 필수적으로 보인다. ‘한 믿음이 정당화된다는 것에 대한 정당화된 메타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인식적 책임의 조건을 ‘메타정당화 조건(meta-justification condition)’이라 부르자.³²⁾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내재주의가 주장하는 합리성의 조건으로서의 메타정당화 조건을 정식화해 보자.

- (M) 믿음 P는 S가 가지고 있는 믿음체계 T의 관점에서 볼 때 합리적이다 iff
 믿음 P가 정당화된다는 것에 대한 정당화된 메타믿음이 S의 믿음체계 T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내재주의의 메타정당화 조건에 대한 치명적인 비판이 있다. 이 비판은 인식 주체의 책임이라는 것, 인식 주체의 합리성이라는 것을 메타정당화 조건(M)으로 파악하고자하는 내재주의의 입장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비판이다. 메타정당화 조건 (M)의 심각한 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무한 후퇴의 문제(infinite regress problem)’이다.³³⁾ 메타정당화 조건 (M)이 무한 후퇴에 빠질 수밖에 없으며, 그래서 메타정당화 조건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정당화된 믿음도 갖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예 2>를 해결하기 위한 인식 주체의 인식적 책임의 조건을 메

31) Bonjour (1985), p. 9-10.

32) 여기에 대해서는 Alston (1986), Chisholm (1988), Heil (1981), Jacobson (1992)를 참조하라.

33) 이 문제에 근거한 내재주의 비판은 Dancy (1985), Heil (1982), Jacobson (1992), Kornblith (1988), 등이 있다.

타정당화 조건(M)에 근거할 수밖에 없다는 내재주의의 일반적인 주장을 인정할 것이다. 다만 필자는 인식적 책임의 조건으로 제시된 메타정당화 조건 (M)을 가장 바람직하게 이해하는 방식이 어떤 것인지만을 밝히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과정 신빙주의가 메타정당화의 조건을 외재주의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볼 것이다.

다음의 예를 고려해 보자.

<예 3>

자옥이는 사회과학자이다. 그녀는 오래 전에 하나의 탐구 과제에 열중해 있었다. 충분히 많은 자료에 근거해서 매우 합리적인 탐구를 통해 r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 그리고 그녀는 방법론에 대한 많은 연구를 통해 이런 탐구방법이 잘 정당화된다는 것을 믿었다. 실제로 그 방법은 매우 합리적이었다. 그러나 매우 바쁜 일들이 많아 이 탐구에 대한 일들을, r에 대한 믿음을 까마득히 잊었다. 그런데 어제 그녀는 점장이가 하는 말을 듣고서 r를 믿게 되었다.

자옥이의 r에 대한 어제 믿음은 정당화되는가? 분명히 자옥이의 믿음체계 속에는 r에 대한 믿음이 정당화된다는 것에 대한 정당화된 메타믿음이 포함되어 있다.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믿음체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내재주의는 r에 대한 자옥이의 믿음이 인식적 책임의 조건인 메타정당화 조건 (M)을 만족한다고, 그래서 합리성의 조건을 만족한다고 간주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직관적으로 r에 대한 자옥이의 어제 믿음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여긴다. 이는 r에 대한 자옥이의 어제 믿음과 r에 대한 믿음이 정당화된다는 것에 대한 자옥이의 정당화된 메타믿음이 적절하게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예 3>에 대해 내재주의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우선 내재주의가 정당화의 조건으로서의 인과적인 연결에 대한 조건 자체를 거부하는 입장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입장은 매우 반직관적이다. 그래서 문제의 믿음과 그 믿음에 대한 정당화된 메타믿음 사이의 인과적인 연결에 대한 조건만을 거부하는 입장을 취할 수도 있

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 3>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메타믿음 역시 넓은 의미에서는 문제의 믿음에 대한 근거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유독 믿음과 메타믿음 간의 적절한 인과적인 연결만을 정당화의 조건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주장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이 그 믿음의 정당화에 대한 정당화된 메타믿음과 인과적으로 적절하게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해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메타정당화 조건을

(M*) 믿음 P는 S가 가지고 있는 믿음체계 T의 관점에서 볼 때
 합리적이다
 =_{df} S에 있어서, 믿음 P는 믿음 P가 정당화된다는 것에
 대한 정당화된 메타믿음과 적절하게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라고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된 내재주의의 메타정당화 조건(M*)는 인과적인 연결에 대한 언급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합리성의 조건을 과정 신빙주의가 고려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M*)에 나타난 적절한 인과적인 연결이 무엇인지는 앞으로 탐구해야 할 과제일 것이다.

5. 결론

과정 신빙주의에 따르면, 한 믿음은 그 믿음이 신빙성 있는 믿음형성과정을 통해 산출된 것일 때에만 정당화된다. 그런데 증거주의는 과정 신빙주의가 정당화에 대한 적합한 이론으로 볼 수 없다고 비판한다. 증거주의의 비판은 신빙성의 문제와 유관한 믿음형성과정의 결정 문제에 근거해 있다. 필자는 신빙성의 문제를 신빙성을 성향으로 해석할 것을 제안함으로써 해결했다. 유관한 믿음형성과정의 결정 문제에 대해서 필자는 믿음형성과정의 결정은 인지심리학의 객관적인

탐구 성과에 근거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그리고 믿음형성과정의 신빙성은 입력조건과 세부적인 인지처리과정의 작동조건에 상대적이라는 점을 밝힘으로써 답했다. 이런 논의를 통해 필자는 과정 신빙주의가 정당화이론으로서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과정 신빙주의가 정당화에 대한 이론으로서 충분하지는 않다는 내재주의의 비판이 있다. 내재주의는 과정 신빙주의가 정당화의 합리성의 조건을 제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내적 우연성을 충분히 배제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합리성의 조건으로 내재주의가 제시하는 것은 인식적 책임의 조건인데, 이는 메타정당화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런데 메타정당화 조건은 인과적인 연결에 관한 언급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과정 신빙주의가 이 조건을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참고문헌

- Alston, William P. (1986), "Internalism and Externalism in Epistemology" in Alston (1989).
- _____ (1988), "An Internalist Externalism" in Alston (1989).
- _____ (1989), *Epistemic Justification*, Ithaca,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 Armstrong, D., M. (1973), *Belief, Truth and Knowled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Audi, Robert (1980), "Defeated Knowledge, Reliability, and Justification" in French, et al., eds., (1980).
- BonJour, Laurence (1980), "Externalist Theories of Empirical Knowledge" in Fench, et al., eds., (1980).
- _____ (1985), *The Structure of Empirical Knowledge*, Cambridge, Massachusetts, and London,

- England, Harvard University Press.
- Chisholm, Roderick (1988), "The Indispensability of Internal Justification", *Synthese* 74 : 285-296.
- Cohen, L. Jonathan (1989), *An Introduction to the Philosophy of Induction and Probability*, Oxford, Clarendon Press.
- Dancy, J. (1985), *Introduction to Contemporary Epistemology*, Basil Blackwell Ltd.
- Feldman, Richard and Conee, Earl (1985), "Evidentialism" in Moser & Nat, eds., (1987).
- Feldman, Richard (1985a), "Reliability and Justification", *The Monist* 68 : 159-174.
- _____ (1985b), "Schmitt on Reliability, Objectivity, and Justification", *Australasian Journal of Philosophy* 63 : 354-360.
- Foley, Richard (1985), "What's Wrong with Reliabilism?", *The Monist* 68 : 188-202.
- French, Peter A., Theodore E. Uehling, Jr., and Howard K. Wettstein, eds., (1980), *Midwest Studies in Philosophy*, vol. 5, *Studies in Epistemology*,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Gettier, Edmund (1963), "Is Justified True Belief Knowledge?" in Moser & Nat, eds., (1987).
- Ginet, Carl (1985), "Contra Reliabilism", *The Monist* 68 : 175-187.
- Gleb, Gary (1990), "The Trouble with Goldman's Reliabilism", *Australasian Journal of Philosophy* 68 : 382-394.
- Goldman, Alvin (1979), "What Is Justified Belief?" in Goldman (1992).
- _____ (1986), *Epistemology and Cognition*, Cambridge, Massachusetts, and London, England, Harvard University Press.

- _____ (1988), "Strong and Weak Justification" in Goldman (1992).
- _____ (1992), *Liaisons: Philosophy Meets the Cognitive and Social Science*, Cambridge, Massachusetts, and London, England, The MIT Press.
- Heil, John (1982), "Foundationalism and Epistemic Rationality", *Philosophical Studies* 44 : 179-188.
- Jacobson, Stephen (1992), "Internalism in Epistemology and the Internalist Regress", *Australasian Journal of Philosophy* 70 : 415-424.
- Kornblith, Hilary (1980), "Beyond Foundationalism and Coherence Theory", *Journal of Philosophy* 77 : 597-612.
- _____ (1988), "How Internal Can You Get?", *Synthese* 74 : 313-327.
- Martindale, Colin (1991), *Cognitive Psychology : A Neural-Network Approach*, Belmont, California, Cole Publishing Company.
- Moser, Paul K. & Nat, Arnold vander (1987), *Human Knowledge*, New Yor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Popper, Karl (1959), "The Propensity Interpretation of Probability", *British Journal of Philosophy of Science* 10 : 25-42.
- Ring, Elizabeth (1986), "Goldman's Reliability Theory of Justified Belief", *Australasian Journal of Philosophy* 64 : 501-507.
- Schmitt, Frederick (1981), "Justification an Reliable Indicator or Reliable Process?", *Philosophical Studies* 40 : 409-417.
- _____ (1984), "Reliability, Objectivity and The Background of Justification", *Australasian Journal of*

Philosophy 62 : 1-15.

Sosa, Ernest (1980), "The Raft and The Pyramid" in Moser & Nat, eds., (1987).

_____ (1991a), "Reliabilism and intellectual Virtue" in Sosa (1991b)

_____ (1991b), *Knowledge in Perspective : Selected essays in epistem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Swain, Marshall (1981), "Justification as Reliable Belief", *Philosophical Studies* 40 : 389-407.